

## 광주지역 8개 언론사 '도청 별관' 공동 여론조사

# “보존” 62% - “철거” 3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 1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철거'보다는 '보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이 같은 결과는 광주일보 등 광주지역 8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 하루동안 광주시민 1천 명에게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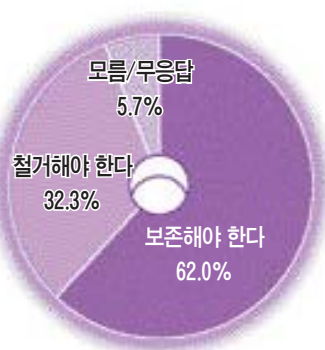
### 동구 주민 41% “철거”

광주시민 10명 중 6명(62.0%)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원했고 3명(32.3%)은 '별관 철거'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별관 보존 응답자 중 66.3%는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를 들어 '원형 보존'을 주장했다. '원형 보존'은 30대(70.2%)와 40대(68.1%) 등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었던 세대와 진보 성향의 시민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박광대 광주시장과 광주지

■ 옛 전남도청 별관 처리 방식



역보다 상대적으로 '철거'(40.5%) 의견이 많았다. 이는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을 접고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서둘러 공동화된 구 도심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 “별관 쟁점 안다” 72%

도청 별관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34.0%) 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한다'(62.0%)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1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시민들은 도청 별관이 어디인지(81.8%), '보존이냐-철거냐'의 쟁점(71.8)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 하루동안 19세 이상 광주시민 1천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하지만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는 동구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

# “여수박람회에 유엔 전시관 설치”

## 반기문 총장 여수 방문...“성공 개최 적극 지원할 것”

유엔(UN)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장에 '유엔 오션스'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은 12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유엔 전시관을 설치하고,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 및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여수 박람회 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현재 유엔과 전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처 등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개최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이어 “전 인류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그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달돼야 한다”면서 “특히 여수엑스포는 여수시민, 대한민국 국민만의 행사나 전치가 아닌 전 인류의 잔치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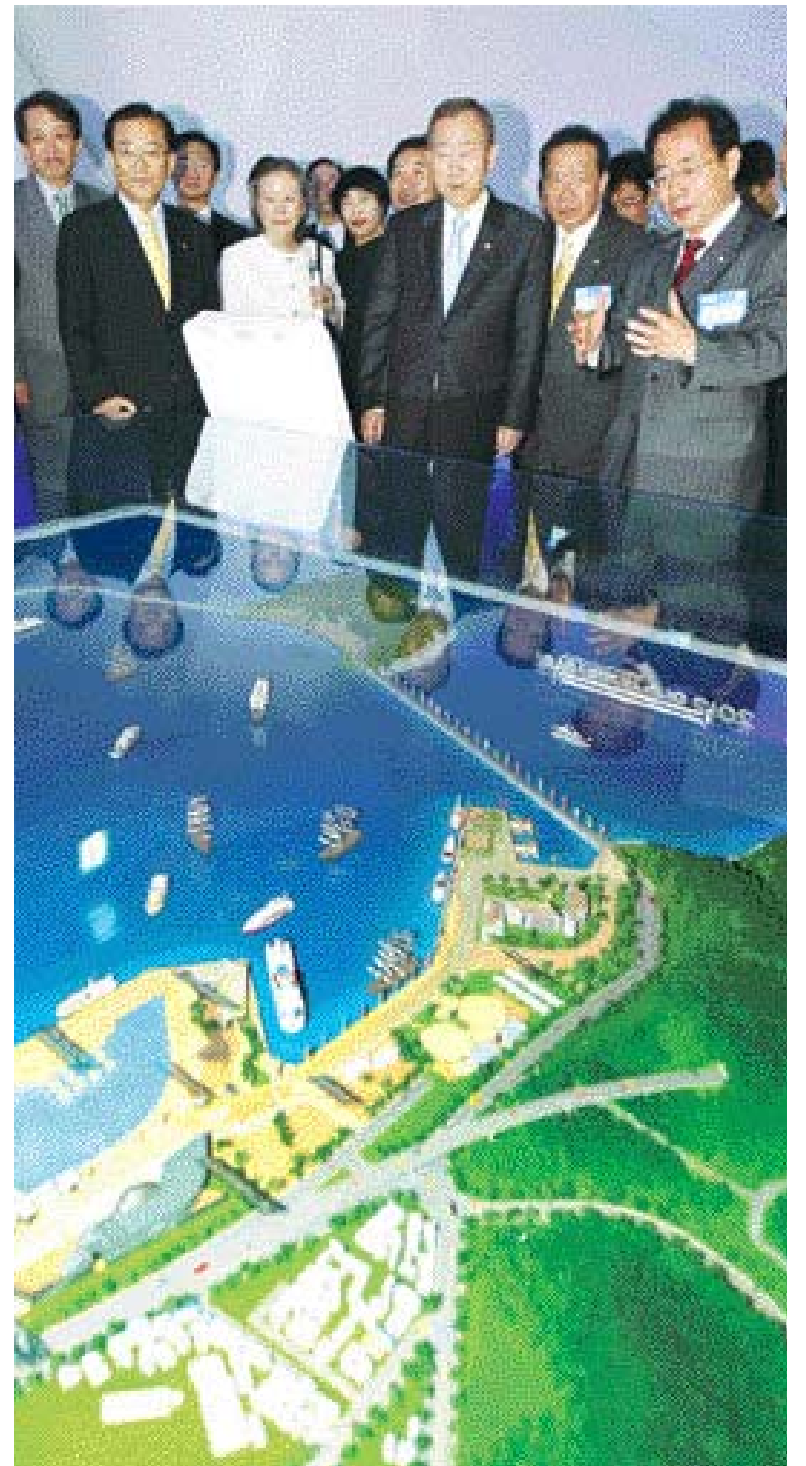
반 총장은 특히 “유엔이 지구 해양 연안 보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 오션스’라는 산하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2012 여수엑스포 때 ‘유엔 오션스’ 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그는 “성공개최는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전남도민, 한국 국민이 합심하고 유엔이 적극 성원하면 여수엑스포 개최로 인해 한국의 브랜드가 한 층 격상될 것으로 믿는다”고 여수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개최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많은 시설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주 이 대통령을 만나 여수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2일 여수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 교총 “교원평가제 수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총은 지난 10일 충북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찬성하고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객관적 평

가 방안 마련, 인사 연계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논란이 됐던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진 한나라당의 의원입법안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안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원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근무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책도 들어 있지 않은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재대로 된 교원평가 법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DJ 사흘째 안정된 상태”

### 의료진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병세가 사흘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병원 관계자는 12일 “병세는 어

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경환 비서관도 12일 “오늘 새벽 4시부터 오래 깨어 있었고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바이탈 지수도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 9일 위급한 상황이 있은 후 3일째 안정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젯밤 숙면을 취했으며, 의료진도 밤새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